

6월 1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1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일제히 2%대 급락...다우 8700선 하회	미국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와 주택건설업체 체감경기가 예상 밖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 지난 주말 선진 8개국(G8) 회담에서 대규모 재정·통화 정책을 거둬들이는 소위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 논의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음. 달러 강세로 유가와 상품가격이 떨어지면서 그간 랠리를 견인했던 에너지 및 상품주로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됐음.
유로존 금융안정성 리스크 높아...2,830억弗 추가상각	유럽중앙은행(ECB)은 내년 말까지 유로존 은행들이 2,830억달러를 추가 상각해야만 할 것이며, 유로존 전체의 관련 손실은 6,49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반기 금융안정성 리뷰를 통해 전망.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예상한 상각규모 7,500억달러, 손실 규모 9,040억달러에는 못미치는 규모. ECB는 주식 시장과 자금 시장, 경제 안정에 대한 일부 징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금융 안전성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IMF, 美 경제전망 상향..."내년 중반 건조한 회복	IMF는 15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8%에서 -2.5%로 상향 조정. 내년 전망치도 종전 0%에서 0.75%로 높여잡았음. IMF는 "미국 경제가 후퇴 국면에서 벗어나 내년 중반부터 건조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GDP 증가에 있어 경기부양 효과가 올해 1%, 내년에 0.25% 반영될 것"이라고 추산. IMF는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안과 주택 및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조정으로 당분간 경제 회복세가 억제될 수 있다"고 지적. 미국의 실업률이 내년에 10%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임.
美 주택시장 회복 지연...건설업 체감경기 악화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는 15일(현지시간) 6월 주택건설업체 체감경기지수가 전월의 16에서 15로 하락했다고 밝혔음. 이는 예상 밖의 하락세임. 마켓워치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망치는 각각 16과 17이었음. 이로써 이 지수는 세 달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음. 앞서 이 지수는 지난 1월 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지난해 평균은 16이었음.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주택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함.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톨 브라더스 등 미국 주택건설업체들은 여전히 고공행진중인 차압과 재고 물량 등으로 인한 손실에 시달리고 있음.

제목	주요 내용
日 SMFG 9230억엔 증자	일본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그룹(SMFG)이 9,230억엔(93억9,000만달러) 규모의 증자 계획을 밝혔다. 주당 3,928엔에 발행되는 이번 증자는 8년 만에 최대 규모로 전날 증가보다 3% 가량 할인된 가격에서 실시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 증자 이후 SMFG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68%포인트 상승한 13%가량으로 높아지게 되며 자기자본비율 역시 10%선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딜로직에 따르면 SMFG의 증자 규모는 올해 들어 전세계 3번째 규모로 HSBC가 196억달러의 자본을 조달했으며, HBOS 역시 128억달러의 증자를 실시한 바 있음.
백화점 매출 쑥쑥...소비 회복신호 왔나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사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월 연속 증가세. 백화점의 경우 사은행사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매출 실적이 개선된 데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로 에어컨, 여성캐주얼 등 시즌수요도 더해졌음. 부문별로는 명품(14.7%), 잡화(13.7%), 식품(8.0%), 여성캐주얼(3.8%), 아동스포츠(3.2%), 가정용품(0.5%) 등이 매출이 늘었고, 여성정장(-4.6%)과 남성 의류(-0.4%)는 다소 줄었음.
稅지원 특수`...6월 車 내수 65% 급증	이는 정부가 노후차 세제 혜택을 시행중인데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면서 교체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됨. 15일 현대·기아·GM대우·쌍용·르노삼성 등 자동차 5사에 따르면 이달들어 10일까지 신차 내수판매는 총 4만6,627대로 전월동기(2만8,333대)보다 64.6% 급증. 이달 들어 신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업체들의 대폭적인 할인판매에다 정부의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 감면 등으로 차량 구입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 게다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신차 구입을 서두른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됨.
STX조선, 불황탈출 `신호탄`...3.4억弗 수주	STX조선해양(067250)이 15일 유럽 선사로부터 5만400DWT급 탱커선 8척(옵선 4척 포함)을 총 3억4,000만달러 규모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탱커선은 길이 183m, 폭 32.2m, 높이 19.1m에 15.2 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으며 국내 진해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 STX조선해양이 이번 대규모 수주를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최근 STX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거점확충 덕이 컸음. STX는 최근 STX유럽과 STX다렌, 국내 진해 조선소를 3대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생산체제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